

“技術의 世界化”

지난 20년 동안 企業의 기술 개발 활동은 큰 재편성을 경험했다. 일본의 技術大國으로의 浮上, 유럽의 기술력 회복, 신흥 공업국의 기술 경쟁력 향상 등 국제적 기술 판도의 변화는 미국의 기술 우위 시대의 막을 내리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 간의 국제적 제휴가 활발해짐으로써 공업 기술 국가 간의 유대와 상호 의존이 深化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기술의 개발과 응용, 기술 확산과 이전 과정도 더욱 국제화,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다음의 통계적 동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의 연구원 수는 G-5 선진국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나라들(특히 일본과 서독)의 연구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연구원 수의 1/5 정도가 국장 관련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격차의 축소 경향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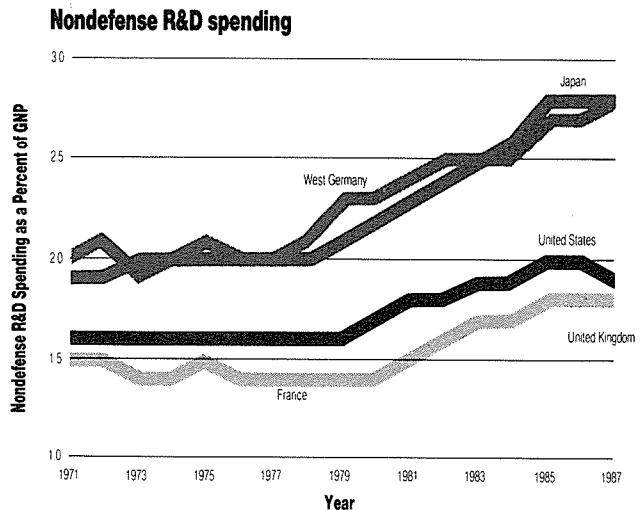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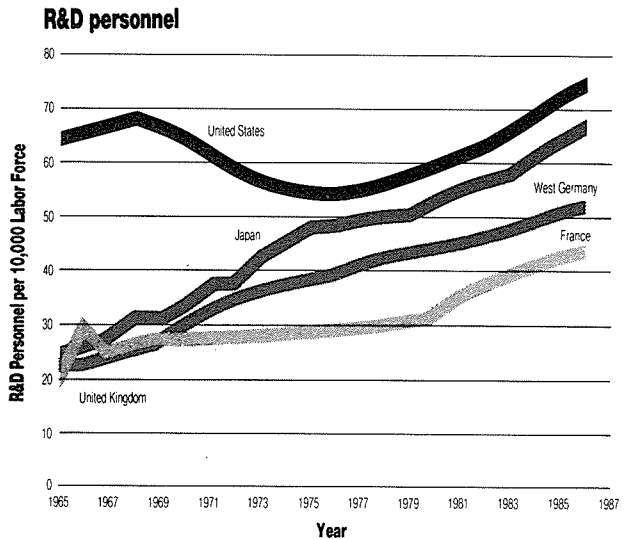
연구비에 대해서도 非國防 관련 연구비만을 고려한다면(미국의 총 연구비의 1/4~1/3이 국방 관련 연구비) GDP에 대한 비율로 보아 일본과 서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1975~1986년 사이에 첨단 제품의 생산은 세계적으로 6배가 증가했으며 그 무역 거래는 9배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은 수출 점유율을 2배로 신장시킴으로써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기술 개발과 기술 획득을 위한 국제적 제휴는 197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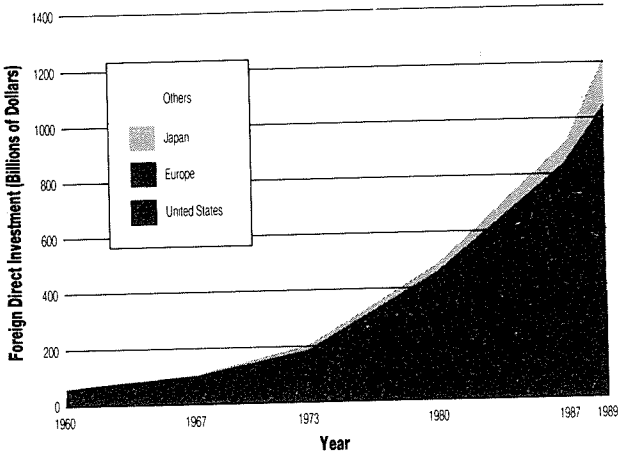
생물 공학, 신소재, 정보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제휴의 4,600건 중 1/2 이상은 국제적 제휴이고, 이 국제 제휴에 미국 기업이 참여한 것은 생명 공학 분야에서 70%, 정보 산업 분야에서 60%, 신소재 분야에서는 50%를 점하고 있다.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Committee 보고서:Issues in S&T(Summer, 1991.)에서 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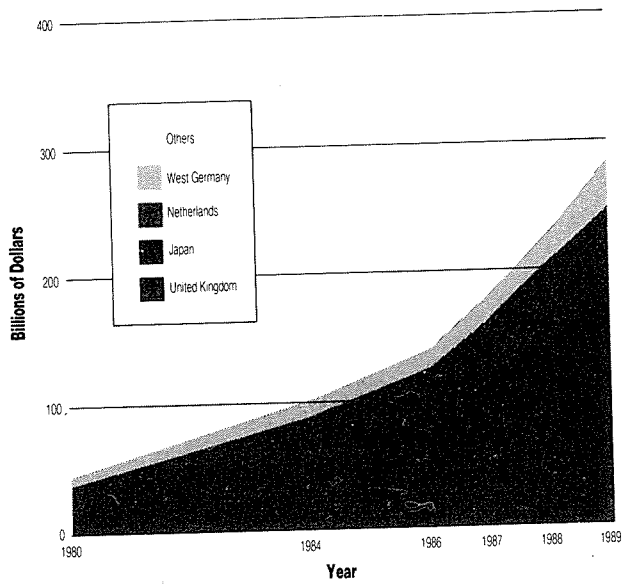


統計/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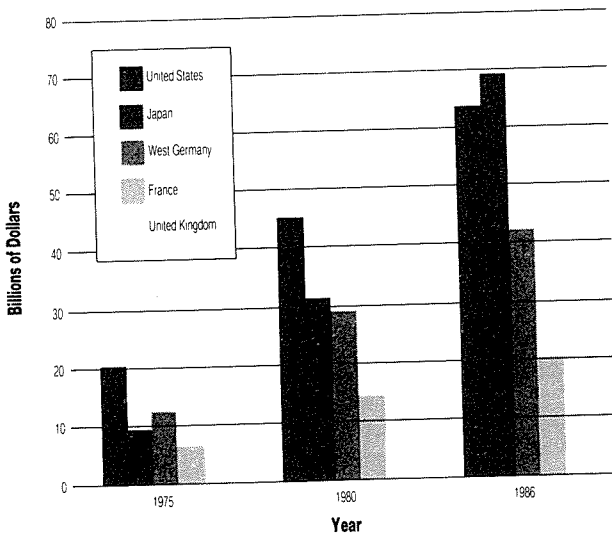
Who invests in other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High-technology exports



Transnational alliances

